

Steinbeck의 非目的論

金 利 哲*

어떤 作家이던지 자기의 思想體系를 직접화법으로 자기 작품에 표출한다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상식을 뒤엎은 작가가 바로 Steinbeck이다. 그는 그의 작품, East of Eden에다 그의 宗教觀과 人生觀을 아무런 수식 없이 표현했고 또한 이 論文의 素材가 되는 The Log from the Sea of Cortez에서는 East of Eden과는 전혀 이질적인 그의 宇宙觀 즉 그의 非目的論(Non-teleology)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의 宇宙觀이 老子的의 그것과 많이 닮았다는 점이다. 물론 Steinbeck이 젊은 시절 老子的의 思想에 심취했었다거나 또한 그의 심오한 思想體系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는 희박하다. 그러나 그의 半自傳的 소설 East of Eden을 보면, 중요 등장인물의 한 사람인 중국인 요리사 Lee로 하여금 작가 자신을 대변시키고 있는데 그가 표현하는 思想이나 思考方式으로 미루어 작가가 어린 시절 Lee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Lee는 동양사상 중에서도 老子的의 사상을 이 작가에게 심어준 것 같다. 그는 실지로 그의 작품 중에 이따금 老子的에 대해 언급하곤 했는데 실례를 들자면 그의 1945년 작품, Cannery Row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이 작품 99 페이지에서 중국인 Lee Chong을,

노자의 인력에 의하여 노자의 궤도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주판과 현금 계산기의 원심력에 의하여 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세아적인 별,
(... an Asiatic planet held to its orbit by the pull of Lao Tze and held away from Lao Tze by the centrifugality of abacus and cash register)이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이런 몇가지 예만을 들어 Steinbeck이 老子的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 일련지는 몰라도 이 작품에 표현된 그의 사상의 뿌리에는 노자의 사상과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점은, 이 작품이라기 보다는 이 여행기를 검토함으로써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 人文大學 教授

Steinbeck 이 탄 Western Flyer 號는 1940 년 3월 11일 Monterey 만에서 출항한다. 때는 오후 12시반 목적지는 <콜테스>의 바다, 즉 California 만이다. 예정으로서는 오전 10시에 떠나려고 했으나, 선상에서 배편 환승회에 시간이 잡혀, 두 시간 반이 늦었다.

Western Flyer 號는 선체 길이가 23미터 약간 넘었고, 165 마력, 10 노트의 속력을 가졌으며 한 때는 Alaska 에 출어한 적도 있는 배로써, 선장 Anthony Berry는 Steinbeck 일행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 여행 혹은 탐험에 배를 물게된 것이다. 계약은 40일간 4월 20일까지 이다.

배를 탄 사람들은 그의 친구이며, 생물학자인 Edward F. Ricketts 를 포함하여 총 7명이다. 그는 이 책에 항해의 준비상황과 항해 중의 승무원의 생활 모습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그는 또한 이 항해의 목적을 무척추동물의 분포상황, 그들의 종류, 수, 생태 등을 조사하는 데 있다고 쓰고 있다. Steinbeck 은 보통 여행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행이 빌미가 되어 첫째 부인 Carol Henning 과 이혼까지 한 사람답게 항해준비를 하는 상황을 신바람이 나서 묘사하고 있다. 거기에는 집을 신는 상황으로부터 시작하여 승무원의 풍모, Mexico 정부로부터 입국허가서를 받을 때까지의 여러가지 일들이 극명히 서술되어 있다.

일행은 다음 날인 12일 San Diego 에 기항하여 연료, 음료수등을 다시 싣고 남하하기 시작한다. California 반도에서는 17일에 San Lucas, 20일에 La Paz, 25일에 Puerto Escondido, 27일에 Loreto, 4월1일에 Angels 만, 동 5일에 Guaymas 등 여섯 곳에 상륙한 것 외에 십수개소에서 채집에 몰두한다.

이들 지명 중에는 후일 The Pearl 의 무대가 되는 La Paz 또는 El Pulmo Reef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우잡이를 하는 일본 어선단이 비록 Mexico 정부의 허가는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족을 말끔히 없애버릴 정도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일본 어선에 건너가 각 어류의 대표적 종류를 골라서 가져오기도 한다. 그들은 4월 20일 제날짜에 Monterey 항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남는 문제는 Steinbeck 이 왜 이런 엉뚱한 여행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Peter Lisca 교수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첫째의 이유는 Steinbeck 이 전년도에 Ricketts 를 따라 San Fransisco 방면으로 채집을 간 적이 있어 그 채집에 대한 그의 흥미와 관심이 그를 움직였을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가 The Grapes of Wrath 로 얻게된 명성과 인기를 역겨워 했으며 그런 명성이나 인기가 작가를 못쓰게 만든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미국이 곧 말려들어가게 될 세계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¹⁾

1) Lisca, Peter.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58. pp. 179-80.

위의 세가지 이유는 우리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추측이 타당하다면 또 다른 추측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Steinbeck이 <분노의 포도>에 스스로가 표시했던 적극적 자세와 그 작품이 불러 일으킨 반향과, 자기가 들여 놓은 발이 너무 깊이 현실에 빠져 들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한 두려운 나머지 얼른 발을 빼고 제자리로 돌아오려 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 Sea of Cortez에서는 The Grapes of Wrath의 자기와 거리를 두려는 배려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행동을 같이 한 Ricketts의 인물상은 The Long Valley 즉 그의 단편집에 포함된 작품, The Snake의 Phillips 박사가 되어 나타나고, 또한 Cannery Row의 <선생님>(Doc)이 되어 나타난다. 기타의 작품에서도 Ricketts와 비슷한 인물이 없지 않다.

Ricketts와 Steinbeck이 서로 만난 때가 1930년 쯤일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에 담겨 있는 About Ricketts를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후 두 사람의 친교는 1948년 Ricketts가 교통사고로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만, 실제로 서로 직접 왕래했던 것은 Steinbeck이 California를 떠난 1942년까지였다.

이 두 사람은 위의 California만 여행 중 각각 일기를 썼는데, 그것들을 그 다음 해 즉 1941년 한데 모아 <Sea of Cortez>로 만들었으며, 이 책은 물론 Ed. Ricketts와 공저이고, 또한 이 책에는 「여행과 연구의 한가한 일지」(A Leisurely Journal of Travel and Research)라는 이 기행문에 잘 어울리는 副題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제 1부와 2부로 된 것으로 전반은 Steinbeck에 의한 여행기이고 후반부는 Ricketts에 의한 해양생물의 분류목록이다. 이것을 후일 Steinbeck이 자기의 전반부의 글과 Ricketts에 대한 추도문을 한 데 묶어 The Log from the Sea of Cortez(1951)로 만든 것이다.

이 작품을 읽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에서 작가가 그린 것은 선상생활의 여러가지 모습과 채집활동이 대부분이며, 그는 인간 중심의 세계를 떠나 얼마동안 다채로운 생명의 세계에서 노닐고 있다. 거기에는 문명사회의 가치관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원시의 바다가 있고,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이따금 <인디언>이 보일 뿐이다.

이러한 원시적 환경과 분위기가 그로 하여금 인간의 보다 원천적이고 원초적인 것을 생각해 했는지, 그의 한가한 생활기록에는 그의 우주관이 불쑥 얼굴을 내밀곤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비평가가 필요 이상 들먹이는 비목적론적 사상이 전개되어 있다. Steinbeck이 이 책에서 설파한 非目的論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그의 자신의 입을 빌어 살펴보기로 한다.

비목적론은 “있는데로” 생각하는 데서 나오며 <다윈>이 생각했던 자연도태와 관련이 있다. 거기에는 깊이, 근원, 명확한 것 등의 뜻이 포함된다. 즉 전통적 개인적인 투영을 넘어 사물을 본다. 그것은 모든 사상(事像)을 결과라기보다 자연적 산물 혹은 표현으로 본다. 또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것을 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비목적론의 사고방식이 취급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만 하며, 무엇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될 수 있는가가 아니고, 현재 뭐가 실제로 있는가이다. 그러므로 “왜”라는 문제 대신에 이미 있는 어려운 문제, 즉 현재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애써 답을 주려는 시도이다.

Non-teleological ideas derive through “is” thinking, associated with natural selection as Darwin seems to have understood it. They imply depth, fundamentalism, and clarity—seeing beyond traditional or personal projections. They consider events as outgrowths and expressions rather than as results; conscious acceptance as a desideratum, and certainly as an all-important prerequisite. Non-teleological thinking concerns itself primarily not what should be, or could be, or might be, but rather with what actually “is”—attempting at most to answer the already sufficiently difficult questions what or how, instead of why (Bantam Books. p. 139)

여기에 반하여 目的論은 사상(事像)을 언제나 原因과 結果의 입장에서 검토 평가하려고 하고, 반드시 뉘뉘 이어야만 한다는 목적의식에 사로잡히는 나머지 사상 그 자체에 인간 중심의 주관적 해석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직면할 것을 거부하고, 더구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거꾸로 사태의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Steinbeck은 자기의 주장을 변호할 양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비목적론을 해설하고 목적론이 빠지기 쉬운 인과론의 잘못, 즉 시간적으로 생기는 일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잘못에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

그는 이 노력에서 사상(事像)을 현재 존재하는 대로 파악하려 했고, 「있는 고로 그것은 존재한다」(It's so because it's so)라는 말을 여러번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老子的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자연이란 스스로 있는 순박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도 순박하게 자연과 더불어 생성화육(生成化育)해야 한다. 되도록 인간적인 욕심과 작위를 버려야 한다.²⁾

또한 老子는 자기가 지나친 학문과 지식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래 도(道)는 하나의 혼돈한 것(混而爲一)이다. 사람들이 선이다. 악이다 하고 논하는 것같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의적(恣意的)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제멋대로 하나만을 내세우고 나머지를 배척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에서 이탈되고 전체의 생성화육을 해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³⁾

다시 Steinbeck의 주장은 계속된다.

2) 張基樞譯, 老子: 서울:三省出版社, 1981. p. 20.

3) 앞책, p. 21.

비목적론으로 하자면 「답」 따위는 없다; 있는 것은 양상뿐이고, 이 양상은 사람의 시야가 넓어짐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다.

In the non-teleological sense there can be no "answer." There can be only pictures which become larger and more significant as one's horizon increase. (p. 139)

여기 대해 老子는 말한다.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인식 안에 있는 것을 포상하는 것이지 인식을 초월한 절대적 실체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다.⁴⁾

그러나 Steinbeck은 위와 같은 주장을 했을뿐 그가 말하는 사상의 객관적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며 또한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문제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공황시대의 실업자 구제문제에 대해 그가 여기서 표시한 자세는 실업상태가 생물이 생을 영위할 때 당연히 수반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했을 뿐 거기에 대한 대책에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또한 전쟁에 대해서도 전쟁은 인간이란 족속의 특성인 자기파괴와 살인습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짓고,⁵⁾ 따라서 인간의 특성에 돌연변이라도 생기지 않는 한 전쟁병은 치료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老子는,

무력은 상서롭지 못한 것, 군자가 쓸 것이 못된다.⁶⁾
兵者不詳之器 非君者之器

라고 했는데, Steinbeck의 전쟁도 인류가 치러야 할 적자생존의 논리라는 생각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인간의 사회이건 그 외의 생물의 세계이건간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양상으로 파악하려는 Steinbeck은 사실을 철저히 존중하려고 하고 있다.

그는 비목적론을 주장하는 한편, 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저해하는 세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간이 가진 기대감과 희망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서로 상관관계에 의해 성립되어 있는 것이어서, 하나의 일에 대한 해답은 결정적 혹은 절대적인 것이 없고 오직 상대적인 것 뿐이며, 사람의 마음에 그리는 전체상(全體像)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간에게는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성질을 본

4) 앞책. p. 16.

5) Lisca, Peter. p. 179.

6) 張基權, pp. 112-13.

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이 목적론과 결부되어 상관관계에 바탕한 해답을 절대적인 해답으로 생각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老子의 것과 많이 닮은 것 같다.

老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악이나 강·약 같은 대립은 인간에 의해서 이름지어진 관념이지 본래의 도에서는 그러한 상대적 대립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구분하고 차별하고 분별하려고 한다.⁷⁾

비목적론의 적용을 저해하는 또 한가지는 모든 사실을 폐쇄된 체계 속에서 생각하려는 인간의 성벽(性癖)이라는 것이다. 만물은 커다란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또한 만물이 상관관계에 있는 것에 눈을 감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老子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다. 老子는,

...자연이란 스스로 있는 순박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도 순박하게 자연과 더불어 생생화육해야 한다. 되도록 인간적인 욕심과 작위를 버려야 한다.⁸⁾

라고 말하고 있다.

Steinbeck 은 세째번으로, 사람이 사실을 직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한 가지 해답에 만족하여 그 것을 움켜쥐고 또한 그 것을 믿고 그 외의 가능한 해답에는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잘못이 낳은 결과의 실례로서 Norway 에서 점점 사멸되어 가는 너조(雷鳥, Grouse)의 보호를 둘러싼 사실 파악의 문제를 들고 있다(Chapter 14). Norway 당국은 처음 매가 너조 급멸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매의 박멸에 장려금까지 주었다. 그런데 결과는 너조가 더욱더 빨리 없어져 가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이 사태를 생태학적 입장에서 분석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즉 너조에는 Coccidiosis(Coccidium)라는 기생충이 끊어 그 때문에 몸이 약해진다. 병에 걸린 너조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의 좋은 사냥거리가 된 것이다. 그러나 매가 병든 너조를 잡아 먹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복시듬>병이 건강한 너조에게 번지는 것을 실제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을 있는대로 보려는 비목적론적 입장에서 그가 쓴 작품은 1936년의 <승산 없는 싸움>(In Dubious Battle)이다. 거기서 작가는 파업이란 문제를 다루면서도 사과따기 인부들에게 편을 들려고 하지도 않고 농장주 쪽에 가담하려 하지도 않는다. 거기에 있는 것은 사실을 직시하는 눈이고 또한 그 사실에 대한 여러가지 주관적 해석은 일체 거부하는 눈 뿐이다. 그는 두 세력의 결투를 자자의 생존상 당연히 일어나야 할 현상으로 간주하고 두 쪽을 다 생명의

7) 앞책. p. 18.

8) 앞책. p. 20.

흐름 즉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파악 하려하고, 일부러 한 시점(視點)에서의 해석을 가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Steinbeck은 우주의 전체상을 다른 말로 전진리(全眞理), 근원(根源), 부정정수(不定整數), 우주상(宇宙像) 등으로 부르고 그 것을 사실 속에 있는 궁극적 모습(핵)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또한 모든 현상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고 목적론의 오류조차 전체상의 일부로 흡수한다. 그래서 그는,

우주상은 <is>(현재 존재하는)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 <is>라는 말은 깊은 곳에 있는 궁극(窮極)의 실체를 나타내는 심원(深遠)한 말이다. 그것은 여러가지 이론(이유)처럼 알팍하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보다 깊고, 존재에 대한 동양적 개념을 지니고 있거나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whole picture is portrayed by is, the deepest word of deep ultimate reality, not shallow or partial as reasons are, but deeper and participating, possibly encompassing the Oriental concept of being. (p. 154)

라고 했으며 또한,

각가지 이론(이유)은 아무리 그 것들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우주상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상은 서로 충돌하는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The separate reasons, no matter how valid, are only fragmentary parts of the picture. And the whole necessarily includes all that it impinges (p. 152).

라고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것들은 훨씬 老子의 思想에 가까와 진다. 왜냐하면 老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道)는 무형의 실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상계의 만물의 하나인 사람이 실체를 알 수 없다.⁹⁾

그래서 老子는 「말할 수 있는 도는 실체적 도가 아니다(道可道 非常道)」라고도 말하고 있다.

Steinbeck은 또한 이 본질적인 것에 신비로운 색깔을 띄게해서는 안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근원적인 것을 여러번 언급했다고 해서 신비주의적 뜻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근원이란 아마도 이미 알고 있는 부호, 지표, 상호참고점등을 통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 근원의 힘은 부정정수(n)이다. 이 통합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거나, 또한 사람의 눈을 끝만한 것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과 같은 정도로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상(事像)

9) 앞책. p. 16.

이나 실제로 있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그 것은 현재의 벡터(vector)나 텐서(tensor), 그리고 스칼라(scalar)와 수리물리학의 전하론(電荷論)등이 빅토리아조 시대의 과학자들이 갖고 있던 기계 모형의 세계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The frequent allusions to an underlying pattern have no implication of mysticism
 Actually, the underlying pattern is probably nothing more than an integration of just such symbols and indices and mutual reference points as are already known, except that its power is n. Such an integration might include nothing more spectacular than we already know. But, equally, it could include anything, even events and entities as different from those already known as the vectors, tensors, scalars, and ideas of electrical charges in mathematical physics are different from the mechanical-model world of the Victorian scientists (p. 152)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Cannery Row 에서의 생물학자인 <Doc>과 중국인 Lee Chong 이며 또한 이 책에서 추도를 받는 Ed Ricketts 이다. 그들의 <이미지>는 인간중심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머리를 기웃거리야 될 사람들이지만, 전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작가가 말하는 부정정수의 존재이며, 또한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모습은 앞서도 인용한 다음과 같은 말과 일치할지도 모른다. 즉 「우주상은 여러가지 이론처럼 얽박하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보다 깊고, 존재에 대한 동양적 개념을 지니고 있거나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teinbeck 은 비목적론을 이처럼 전개하고, 현상의 상호관련성과 연속성을 설파하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사고는 필연적으로 현상 속에 혹은 배후에 숨어 있으면서 연속성을 주재(主宰)하는 어떤 존재를 상정(想定)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배후의 것에 신비성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상대적인 사실에만 눈을 돌리고 안주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봐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Steinbeck 의 마음에 본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의 비목적론을 거슬러 올라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시간에 대한 그의 관념, 또한 실체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이런 생각과 관념을 기반으로 해서 그의 가치관이 탄생했고, 그것을 부연시켜 비목적론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고생물학 혹은 화석학(化石學) (Paleontology)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온다. 그의 3월 18일의 기록에 있고, 또 한 번은 Ricketts 에 관한 항목에서 볼 수 있다.

고생물이란 말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화석에는 언급하고 그 것을 통하여 시간과 생명에 대한 그의 생각을 서술한 것은 그의 단 작품 Travels with Charley 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의 제 3부에서 고향 Monterey 로 돌아와 <시쿼이어>(sequoia)의 숲 속에 서서 생명론의 생각에 깊이 잠긴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고생물학 혹은 화석학이 이 작가에 접하는 무계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화석학의 입장에 선다면 인간사의 한 토막이라

는 것도 그 것이 우주의 시간의 흐름 속에 접하는 역할은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와는 전연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Steinbeck은 이 <항해일지>에서 우주사 혹은 생명의 역사에 서서 존재를 논하고, 사실에서 가치를 헤아려 보려한 것이다. 그가 이 작품에서 사실의 인지(認知)에 주력을 두고, 사실의 당위성을 논하는데 급급하지 않은 것은 인간중심의 생각을 벗어나 우주에 영원히 흐르는 생명, 그 자체로 돌아가 현재의 사상(事像)을 다시 파악하려는 데 주안을 두었기 때문이다. 좀 더 천착을 하자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초두에도 언급한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는 <분노의 포도>에 대한 하나의 거리를 두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므로써 그는 인간 중심의 세계(사회적)에 한차례 깊이 발을 들여놓은 것을 뒤로 빼고, 사회현상을 다시 새롭게 파악하려 했던 것이다.

비목적론에 철(徹)한 인물이 마치 탈속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그 사람이 현 시점에서 서서 사실을 관찰하면서도 당면의 사실을 끊임 없는 생명의 연속성 속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현 시점에만 사로잡혀 무한적인 시간을 잊어버린다면, 하나의 같은 사실을 파악하는 데도 방법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Lisca 교수가 이 책은 하나의 사상체계가 아니라 일종의 명상록(冥想錄)이라고 지적했듯이,¹⁰⁾ Steinbeck은 위와 같이 동양적 시간개념을 피력하면서도, 자기로서는 도저히 동양 사상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한탄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간의 개념이 인종에 따라 다른 것은 이상하다. <웨스턴 플라이>호의 난간에 걸터 앉아있는 인디언들은 우리들과 다른 시간 관념을 가지고 있다. —시간 관념이라기 보다는 <시간의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생각컨대 그들의 시간 세계로 들어가져 않는 한 인디언 속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점점 팽창되는 시간 관념은 그만큼 팽창되는 우주를 따라가거나 혹은 끌고 가기 때문이다.

It is strange how the time sense changes with different peopoles. The Indians who sat on the rail of the Western Flyer had a different time sense—"time-world" would be better—from ours. And we think we can never get into them unless we can invade that time-world for this expanding time sense seems to trail an expanding universe, or perhaps to lead it. (p. 88)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끊임 없이 흐르는 시간을 앞에 놓고, 현 시점에서 있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 인간은 우주의 실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는 결국 자기 자신 속에서 그 실체를 감득하려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현대정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Steinbeck이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현대적이기는 커녕 지나칠 정도로 中世의이다. 즉 현미경 속에서 중세가 탄생하고 상대적 세계에서 신이 탄생한다. 이 책에서 Steinbeck은 그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것은 필경

10) Lisca, Peter, p. 181.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지닌 중세적인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흥미는 동물과 동물의 상호관계였다. 상대적 입장에서 관찰한다면 종족(species)이란 한 문장의 코마에 지나지 않는다. 각 종족이 동시에 피라미트의 정상이기도 하고 기단(基壇)이기도 하며, 생명이란 모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같은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호 관련적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종족에 관한 의미나 느낌도 애매해진다. 하나의 종족은 또하나의 종족에 통합되며 분류상의 한 군(群)은 변하여 생태상의 한 군이 된다. 드디어는 우리들이 생명이라고 알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비생명이라고 보는 것으로 합하거나 혹은 그 속으로 들어가고 만다. 조개삿갓(barnacle)이 바위와, 바위는 대지와, 대지는 나무와, 나무는 비와 공기, 이처럼 개체는 전체로 흡수되어 전체와 떨어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조수 웅덩이로, 혹은 수족관으로 되돌아오지만, 그 때는 이미 작은 동물도 그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끊겨져있는 것도 아니고 단독인 것도 아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종교적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대부분, 또한 인류사이에서 가장 바라고 존중되는 정신적 반응의 하나인 신비적 부르짖음의 대부분은, 인간이 우주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는 시도였다. 이것을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고 성 어거스틴, 성프란시스와, 로저·베이큰과 찰스·다윈, 또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낸 것이다. 卍—이며 —卍이라는 인식을—프랑크톤이나 해상의 인광이나 떠돌고 있는 행성도 또한 넓은 우주도 모두 시간이라는 고무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위의 각 위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발견하고 너무나 경악한 나머지 높은 소리로 외쳐 재확인한 것이다.

Our own interest lay in relationships of animal to animal. If one observes in this relational sense, it seems apparent that species are only commas in sentence, that each species is at once the point and the base of a pyramid, that all life is relational to the point where an Einsteinian relativity seems to emerge.

And then not only the meaning but the feeling about species grows misty. One merges into another, groups melt into ecological groups until the time when what we know as life meets and enters what we think of as non-life: barnacle and rock, rock and earth, earth and tree, tree and rain and air. And the units nestle into the whole and are inseparable from it. Then one can come back to the microscope and tide pool and the aquarium. But the little animals are found to be changed, no longer set apart and alone. And it is strange thing that most of the feeling we call religious, most of the mystical outcrying which is one of the most prized and used and desired reactions of our species, is really the understanding and the attempt to say that man is related to the whole thing, related inextricably to all reality, known and unknowable. This is a simple thing to say, but the profound feeling of it made a Jesus, a St. Augustine, a St. Francis, a Roger Bacon, a Charles Darwin and an Einstein. Each of them in his own tempo and with his own voices discovered and reaffirmed with astonishment the knowledge that all things are one thing and that one thing is all things—plankton, a shimmering phosphorescence on the sea and the spinning planets and an expanding universe, all bound together by the elastic string of time. (p. 218)

여기서 다시 老子的 말을 들어보자.

모든 날개의 물체는 그 자체로는 유한하고 불완전하지만, 그 존재가 근원적으로 무한하고 완전한 도를 바탕으로 했고 또 도와 연속적 관계에 있음으로 이들의 말(末)은 도라는 본(本)에 돌아감으로써 스스로의 유한성과 불안정성을 탈피할 수 있다.¹¹⁾

Steinbeck이 현존하는 생명이 비생명적인 것으로 흡수된다고 생각한 것은, 그가 우주의 실체를 현 시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토막낼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²⁾ 그는 우주의 실체란 우리가 비생명, 즉 이미 연소력(燃力)을 상실한 생명이라고 간주하는 것들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To a God Unknown(1933)의 제 4장과 또한 Travels with Charley(1962)의 제 3부에서도 하고 있다. 즉 지상의 생명은 실체(實體)의 투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현재의 존재를 포월(包越)하는 존재가 있다는 그의 이런 생각은 30여 년의 작가생활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서 한 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즉 거부하려 해도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다. 우리는 그 것을 무신론 속에 갖든 신, 허무 속의 신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의 기준도 이러한 그의 우주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한 그의 비목적론도 실체에 대한 그의 생각, 생명에 대한 그의 관념을 참고로 풀어간다면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의 말미 부분에서 새우 잡이를 하고 있는 일본의 어선단을 본 조타수 Tiny가 일본인들이 수산자원을 근절시킨다고 독설을 퍼붓자, 그 말을 들은 작가는,

대우주에서는 낭비란 하나도 없다. 방정식은 언제나 균형이 잡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낭비는 없는 것이고, 또한 있을 수도 없다. 다만 에너지의 변형이 있을 뿐이다. 물론 각개의 무리에게는 낭비가 있음에 틀림없다. 즉 상한 생선은 인간에게, 부서 흐트러진 생선가루는 갈매기에게, 뼈와 비늘은 판 어떤 것에 낭비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로서는 낭비가 있을 수 없다. 생명이라는 대 유기체(大有機體)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모든 것을 사용한다.

. . . in the macrocosm nothing is wasted, the equation always balances There is not, nor can there be, any actual waste, but simply varying forms energy. To each group, of course, there must be waste—the dead fish to man, the broken pieces to gulls, the bones to some and scales to others—but to the whole, there is no waste. The great organism, life, takes it all and uses it all. (p. 265.)

라고 생각한다. 생명과 비생명, 환영(幻影)과 실체, 어떤 뜻에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절망감을 지닌 비생명 위주의 우주관을 지닌 이 작가는 우주 속에서 발견한 균형에서나마 위로

11) 張基權. p. 76.

12) Fontenrose, Joseph. John Steinbeck: An Introduction and Interpretation. N.Y.: Barnes & Noble, Inc., 1963. p. 89.

를 찾으려 하는 것 같다.

끝으로 Steinbeck 이 그리도 이해하고 파악해보려 했고, 또한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했던 老子的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을 헤아려 보고, 따라서 이 작가가 그 사상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老子的 無爲自然은;

아무 것도 안한다,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인공적(人工的)·자의적(恣意的) 기교나 작위(作爲)·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본래 우주·천지·만물은 스스로 그렇게 되었고 또 제물로 운행되고 변화·발전한다. 이것을 자연(自然)이라 한다. 자연은 <스스로(自) 그렇게 되다(然)>의 뜻이다. 타력적이거나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밖에는 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을 자연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도 모든 것을 자연에 따르고 인위적인 작위를 가하지 말라는 것이 노자의 주장이고 이를 <무위·자연>이라고 한다. 우주·천지·만물은 사람이 나오기 전부터 스스로 있었고 또 제물로 생육화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도 인공적인 도덕이나 정치를 내걸지 말고 무위자연하는 것이 바로 도를 따르고 자연과 일치하는 것이며, 그때야 영원한 실재인 도와 더불어 스스로 생육화성할 것이다. 유가, 특히 성리학(性理學)에서 높이는 <주역>도 바로 이러한 생육화성의 천리(天理)를 푼 것이다. 참고로 중국의 진영첩(陳榮捷)선생의 무위의 영역(英譯)을 부기하겠다. 「Non-action (無爲) is not meant literary 'inactivity', but rather 'taking no action that is contrary to Nature' —in other words, letting Nature take its own course」¹³⁾

이러한 老子的 無爲自然觀에 비교해, 이 작품, The Log from the Sea of Cortez 에 포명하려 했던 Steinbeck 의 무위자연관, 소위 그의 비목적론을 다시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非目的論的 思考(Non-teleological thinking)란 이 세상에서의 하나의 현상을 무엇이 현재 있는가(what actually "is"), 즉 어떻게 (how) 있는가라는 상(相)으로 파악하려는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왜(why), 또한 어떻게 있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등의 사물에 대한 원인이나 결과를 구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또한 기대감이나 소망을 선행시켜 현상의 파악을 이차적 지위로 몰아넣는 방식을 배제하려는 사고방식이다. 그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파악하려는 것이며, 거기에 因果律 중심의 해석을 끌어넣는 것, 또한 소망사항을 삽입시키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려 한다. 왜냐하면 Steinbeck 은 현재 존재하는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가치판단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과를, 기대같은 것은 상대적 양상(樣相)에 절대성을 부여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모든 현상은 실체의 한 양상, 전우주상의 한 양상으로서 상관관계의 입장에 서서 파악되어야 하며, 사람들은 하나의 현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 전에 그것이 전체 우주 중에 접하는 상관성에 입각하여 현상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13) 張基權 p. 45.

그 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현존해 있는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 좋은 예로 앞서 설명한 Norway의 뇌조사건을 들고 있다. 이 예를 들면서 작가는 현상의 상호관계를 생태학(生態學)적 입장에서 분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비목적론의 사고방식은 한편으로는 생태학에 대한 그의 생각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 가치관을 말하자면 그 것은 시간에 대한 그의 관념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도하다.

무엇이 현존하느냐를 우리는 <현재>의 시점(時點)으로 생각하려하는 것이지만, 이 <현재>라는 것은 단 것으로부터 단절된 현재라는 뜻이 아니고, 과거·현재·미래라는 연속성 속에 위치한 현재인 것이다. 즉 현재 '있는' 것의 가치는 대우주에 흐르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 기준이 되는 것을 그는 비생명(non-life), 실체(reality), 시간(time) 등으로 부르고 있다. 현상을 상호관계로 파악하고 그 상대성을 따져들어가면 그 배후에 무엇인가 절대자와 비슷한 것을 상정(想定)할 수 있는데, Steinbeck은 그것을 <무한한 통일체>(infinite whole), <근원이 되는 형태>(underlying pattern)등으로 부르고 있다.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귀일하는 곳은 같은 것이다.

시간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고생물학(古生物學: Paleontology) 또는 화석학에 대한 그의 신뢰로부터 생겨난다. 즉 그는 시간이라는 영원성에 입각하여 현상을 헤아리려는 것이다.

비목적론은 극히 실증적인 색채를 띄고 있으며, Steinbeck의 realistic한 면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이론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상정(想定)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Fontenrose 교수도 지적했지만,¹⁴⁾ Steinbeck 자신은 Emerson의 Oversoul이란 용어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공동작품인 이 Sea of Cortez가 과연 어디까지나 Steinbeck 자신의 것일까라는 문제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기가 맡은 부분을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Ed. Ricketts의 일지도 이용했다고 한다. Lisca 교수는 이 문제에 관하여 Sea of Cortez는 별로 좋지 않은 작품으로 깎아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단 작품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앞 뒤가 안맞는 평을 하고 있다.¹⁵⁾ 다만 단 작품에서 Steinbeck이 비목적론에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작품에서는 Ricketts의 의견을 많이 참고로 한 것 같다. 그러나 한편 실체나 시간에 대한 생각은 Steinbeck의 일관된 사상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14) Fontenrose, Joseph. p. 92.

15) Lisca, Peter. pp. 178-183. 1

參 考 書 籍

- Moore, Harry Thornton. *The Novels of John Steinbeck*. Chicago: Normandie House, 1939.
- Tedlock, E.W., Jr., and Wicker, C.V., editors. *Steinbeck and His Critics: A Record of Twenty-Five Years*. Albuquerque: Univ. of New Mexico Press, 1957.
- Lisca, Peter.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58.
- French, Warren. *John Steinbeck*. N.Y.: Twayne, 1961.
- Watt, F.W. *John Steinbeck*. N.Y.: Grove Press, 1962.